

KEA 협회 주요사업 현황 >>>

기술처

“전력신기술 심사”

전력신기술 지정제도는 1995년 전력기술관리법이 입법화되면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기술 인증제도로써 1997년 인증을 위한 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전기협회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전력신기술 지정절차

전력신기술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기술이 전력기술관리법상에 따른 전력기술의 대상여부가 우선되어야 하며, 대상이 될 경우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경제성 포함)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접수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30일간의 관보 공고와 관련기관의 서면 검토 절차를 거쳐 심사전문기관인 대한전기협회 심사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인정된 기술은 지식경제부를 통해 관보에 고시하게 되며, 인증서를 교부하여 지정기술로서의 효력(유효기간 3년)을 얻게 된다.

❖ 전력신기술 심사

지정절차 과정에서 신청기술의 인정여부를 평가하는 심사업무는 전력신기술 지정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소,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 100여명을 심사위원단으로 구성하여 신청기술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위원을 선정, 심사업무에 임하게 하고 있다.



❖ 전력신기술 지정현황

2009년 말 기준으로 총 76건의 지정·고시된 전력신기술 중 43건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심사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증가 원인은 시행초기에는 뚜렷한 지원제도가 없었으나 정부차원의 활용 및 보급 촉진등 많은 제도개선을 통한 혜택이 부여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신기술 취득과정의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향상이외에도 실제 활용에 따른 상당한 기대효과의 창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전력기술 심사위원회



KOREA ELECTRIC ASSOCIATION

〈연도별 지정/심사건수〉

구분	97~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지정/심사	10/23	6/9	12/16	5/11	16/25	18/34	7/21	12/20	86/159

〈유효 43건 신기술의 분야별·내용별 현황〉

□ 분야별 구분

구분	송전	변전	배전	발전	내선	기타	계
건수	23	1	13	1	4	1	43

□ 내용별 구분

구분	시공법	측정/진단	제품/제조	설계	기타	계
건수	29	5	7	1	1	43

❖ 전력신기술의 보호 및 혜택

전력신기술로 지정되면 정부에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주요지원 및 혜택을 살펴보면, 발주자와 신기술 지정자간 협의에 따라 기술사용료 지급 등의 규정이 있으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고 우선 사용 및 시험시공을 권고받게 된다. 이상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이지만 각 발주기관은 특성에 맞게 신기술 지정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마련,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신기술개발자금 지원의 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업화하고자 할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며,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시 가점 혜택부여,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 전력신기술의 활성화

전력신기술은 지정 자체보다 지정 이후의 활용 및 보급이 확대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예산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 손실감소, 품질향상,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신기술 활용에 대한 문제는 지정자와 발주기관간에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숙제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제도적인 개선과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신기술 적용에 따른 거부감을 없애는 것으로 발주기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신기술을 적용하는 선도적인 자세전환이 요구된다. 대한전기협회에서는 심사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성공사례 발굴과 활용에 따른 효과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제도 활성화와 국내 전력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KEA